

(2) 設計 施工 兼業 許容 論爭과 建設業 競爭力

- (現況) 公正去來委員會의 建設業체의 설계 허용 추진에 대해 설계 업계에서 강력히 반발
- (設計 施工 分離 制度의 問題點) 建設 시장이 개방된 현 시점에서 설계 시공 분리 제도로 인해 해외 건설에서 고부가가치 사업 진출이 어렵고,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이 외국 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競爭力 強化 爲해 早期 進入 規制 緩和) 業域間의 이해 관계보다는 건설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업 겸업 허용이 조기에 실현되어야 함. 건설업체들은 특화 분야의 설계는 전문화시키고 여타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외 설계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야 함

건설업계의 설계 겸업 허용에 대해 설계업체가 강력히 반발

- (現況) 公正去來委員會의 建設業체의 設計 許容 추진에 대해 設計業界에서 강력히 반발
  - 현행 건축사법에 의하면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만 건축 설계를 할 수 있어 시공업체는 설계를 할 수 없음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 서비스업의 진입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건설업체의 설계 겸업 허용을 추진 중
  - 설계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겸업 허용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
  - 건설업체의 설계 허용시 설계업체는 몇 개의 대형 건설업체에 종속돼 몰락할 위기에 직면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설계 시공 분리 제도로 인해 국내외 업체간 수주 경쟁력 격차 심화

- (設計 施工 分離 制度의 問題點) 設計 施工 分離 制度로 해외에서 高附加價値 사업 진출이 어렵고, 국내 업체들이 외국 업체의 下請業體로 전락 가능성이 큼
  - 건설 시장 개방으로 시공 수행 경쟁보다는 수주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임
  - 수주 경쟁력은 건설 사업의 기획력과 종합 계획 수립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설계 능력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국내의 경우 설계와 시공 분리로 건설업체들의 EC(Engineering Construction: 종합건설업) 기

능이 제약되고 있음

- 이로 국내 건설업체들은 건설 수요의 고부가가치화, 다양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 합작, 단독으로 진입한 100여 개 업체는 시공보다는 설계, 감리,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 관리)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음
- 국내외 건설 시장에서 턴키 발주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설계 또는 시공만을 부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외국업체의 하청업자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경우, EC화된 건설업체들이 설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순수 건축설계업은 5% 미만에 불과함

업역간 이해보다는 건설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건설업계 설계 허용, 건설업체는 특화 분야의 설계 전문화에 주력할 필요

- (競争力 強化 위해 早期 進入 規制 緩和) 業域間의 이해 관계보다는 건설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업 겸업 허용이 조기에 실현되어야 함. 건설업체들은 特化 分野의 설계는 専門化시키고 여타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외 설계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야 함
  - 국내에서 시장 잠식을 막고, 해외에서 개발형 사업이나 턴키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건축사를 고용할 경우 설계를 허용해야 함
  - 건설업체들은 특화 분야 설계는 전문화시키고 여타 부문은 국내외 설계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야 함
    - 현재 건설업체의 경우 설계 시공 동시 수행에 필요한 자체 설계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나 자본금 규모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이점이 있음
    - 반면에 건축 설계업체는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나 건설업을 포용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없는 실정임
  - 설계 시공의 종합화는 이제 업계간의 이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서 건설업 전체의 생존 차원에서 전략적인 제휴의 확대가 절실 (김 선 덕)